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5호 2017년 12월 13일(수)/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우리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유지'

02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강식 개최

02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02 수험생 격려 '사랑의 합격 찹쌀떡' 나눔 행사 가져

03 이상열 교수, 경찰행정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03 이화용 교수, 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의 상처치료 기전 규명

03 괴산군 저소득 가정에 기부금 전달

03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선정 등 성과

04 협약식

04 학교 단신

Students News

05 전국체전 양궁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 획득

05 연극영화학과,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괴산경찰서장상' 수여 받아

05 우리대학 학우들 '솔라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입상

05 항공서비스학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빛냈다

06 2017학년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JWU in 人

07 금메달을 향해 쏴라!

Global JWU

08 나는 중원대생이다 – 유학생 3편 –

Life in JWU

09 중원인의 영수증 스튜핏? 그레잇?

10 Made in 중원 빠숑피플

11 중원의 따뜻한 손님

Career

12 눈을 가려도 '나야 나' [블라인드 채용]

13 클릭해봐! 다이쏘 대학생 필수 홈페이지

Special

14 소씨 자매의 취업 성공기!

15 생생 '알바' 통

16 괴산을 180° 뒤집다!

17 인생 리셋 각 인정?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18 전국노래자랑

Culture

19 제 5회 산업디자인학과 인사동 졸업전시회 'PIT A PAT'

우리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유지'



▲우리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유지'를 획득했다. 평가인증은 2019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우리대학교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 유지' 결과를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이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 대학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으며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중원대가 2014년에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후 2년간의 실적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리대학은 모니터링에서 6개 필수평가준거(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를 포함한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 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의 50여개 평가 준거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2019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학기관평가인증, 간호교육인증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서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6년 정보공시 기준 취업률(72.2%), 전임교원 확보율(81.6%), 장학금 비율(294%) 등 주요지표에서 충북도내 상위권대학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편집부〉

'201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강식 개최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강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김두년 총장직무대행, 나용찬 괴산군수, 정희택 부총장.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1시 CEO룸에서 교육생 20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괴산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산학협력단은 국비 8천만 원을 2018년 12월 말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번에 1차 개강하는 '물류관리 실무인력양성과정'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였다.

실무교육을 받게 되는 20여 명의 교육생들은 물류관련 전문교육 및 지게차 교육을 받게 되며 수료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음에 개설될 교육과정도 괴산군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원대와 괴산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생 중 5명은 졸업을 앞둔 중원대 재학생들이 포함돼 있어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의 실무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사회봉사단이 연탄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이 13일 괴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괴산읍, 소수면, 불정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등 5가구를 직접 찾아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우석(항공재료공학과 4학년) 학생은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이 갖춰진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2013년부터 매년 지역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수험생 격려 '사랑의 합격 찹쌀떡' 나눔 행사 가져



▲ 수시면접을 위해 방문한 고등학생에게 행운의 찹쌀 떡을 나눠주고 있다.

우리대학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수시모집 면접·실기고사 기간 동안 본관 로비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합격 찹쌀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중원대를 방문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험생 800여 명에게 찹쌀떡을 전달한 후 예비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도 수렴하고자 설문지 작성을 진행했다.

경찰행정학과에 응시한 이현서(광휘고 3, 여) 학생은 "처음 보는 면접이라 많이 떨렸는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찹쌀떡을 나눠주면서 응원도 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다"며 "합격 찹쌀떡을 받았으니 꼭 합격해서 멋진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수험생들이 찹쌀떡을 받고 잠시나마 긴장을 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온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우리대학에서 꿈과 열정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매년 면접·실기고사 기간에 면접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면접 대기실에서 학교소개 및 생활안내, 학과진로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이상열 교수, 경찰행정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상열 교수(가운데 사진)가 대통령 표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기획정보처장, 김두년 총장직무대행 정희택 부총장, 권정현 교학지원처장.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 이상열 교수가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업무협조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열 교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성과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청이 4년 연속(2013~2016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표창 수상을 통해 우리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주신 이상열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열 교수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학교발전과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상열 교수는 현재 경찰청 성과평가위원을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등을 맡아 경찰행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편집부〉

이화용 교수, 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의 상처치료 기전 규명



우리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화용 교수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홍인선 교수팀과 공동으로 논문 '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을 이용한 피부 손상의 치료법 연구'를 세계적인 학술지 'Cell'의 자매지인 'Molecular Therapy'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의 상처 치료 효능 및 관련 기전 연구(Stem Cell Secretome and Its Effect on Cellular Mechanisms Relevant to Wound Healing)'라는 제목으로 '몰레큘러 테라피(Molecular Therapy)' 10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자체를 피부조직 재생에 이용하는 기존의 치료법과 달리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 성분들을 이용한 피부 손상 치료법 개발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단백질 성분들이 어떠한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손상된 피부조직을 복구하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화용 교수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기존의 치료법과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화상 및 당뇨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부조직 손상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논문색인(SCI) 저널인 'Molecular Therapy' 학술지는 '미국 유전자 및 세포치료학회'의 공식 학술지이자 생명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Cell'의 자매지로서 유전학 관련 분야 상위 7.5%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로 알려져 있다. 〈편집부〉

괴산군 저소득 가정에 기부금 전달

우리대학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지난 11월 23일 괴산군청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부금과 수제 사과잼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중원대 지역사회 사랑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항공서비스학과, 창업동아리 '다온'의 재학생들과 창의인성교육센터 교직원이 참여했다.

항공서비스학과는 지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피켓도우미 및 진행도우미 역할을 수행한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이연숙) 재학생들이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수고비를 십시일반 모아 100만원을 마련해 괴산군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창의인성교육센터(센터장 이지연)는 2017 중원대 비교과프로그램 '아름다운 나눔장터' 바자회 행사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100만원을, 창업동아리 '다온'(지도교수 최상범)의 재학생들은 괴산군 '애플랜드' 과수원에서 기증받은 사과로 손수 만든 수제잼 20병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금을 전달한 이선영(항공서비스학과, 3) 학생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마련했다"며 "이웃을 돕고자 하는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중원대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나용찬 괴산군수,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한편 '중원대 지역사회 사랑 나누기 캠페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얼마 전에는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괴산읍, 소수면, 불정면의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한바 있다. 〈편집부〉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선정

이홍찬 교수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공로자'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공로자 이홍찬 교수(사진 왼쪽 첫번째).

우리대학이 11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환경공단 2017년 그린캠퍼스 성과보고회'에서 그린캠퍼스 연차평가 결과 고득점을 받아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대학 이홍찬 교수(그린캠퍼스 사업단장)도 친환경 캠퍼스 조성,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우수대학 공로자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이홍찬 교수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환경변화 인식 및 대응실태 설문조사, 그린캠퍼스 UCC 및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 및 참여를 확산시킨 성과를 발표했다. 이홍찬 교수는 "우리대학은 2014년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친환경 생활 참여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5년 그린캠퍼스 성과보고회'에서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1,000kW의 전력과 5.49tCO2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그린캠퍼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편집부〉

PHOTO NEWS 협약식



▲ 괴산군과 업무협약 체결
괴산군과 인적 · 물적 자원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12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재길)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13공수특전여단과 학군제휴 협약 체결
11월 21일 제13공수특전여단(여단장 박원호)과 상호발전 및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위한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 미국 델타 퀄리플라이트 항공학교와 항공산업 인력 양성 협약 체결
10월 26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항공학교 'Delta Qualiflight Aviation Academy(D.Q.A)'와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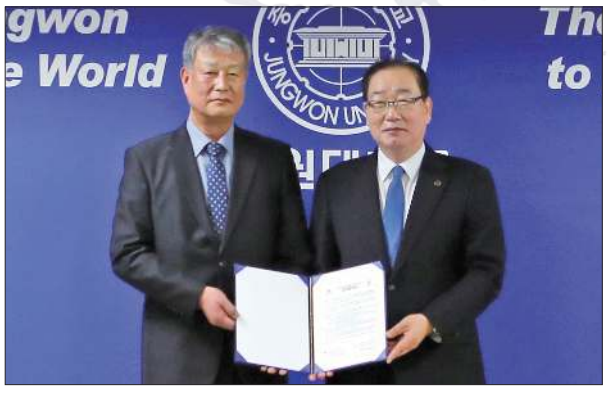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와 대학 간 상생발전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경주대 교육자원 교류협력 협약 체결
경주대 대회의실에서 양 대학간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인천항보안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11월 14일 오전 10시 교무회의실에서 인천항보안공사와 항만보안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북부보훈지청과 업무협약 체결
11월 8일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단신

김성희 교수의 카본아트 'Life, String and the Universe' 전시-탄소섬유 'Tansome' 로 생명과 우주 연결 매개 역할

김성희 교수(교양학부)가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에 공동으로 정식 초대되어 한국 최초로 다양한 카본아트를 선보였다. 이번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은 JEC ASIA SEOUL 2017(국제복합소재전시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되었으며 이번 행사에 탄소섬유와 예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희 교수의 카본아트 'Life, String and the Universe' 전시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중원대,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 가져

우리대학은 10월 19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 중원대는 씨름에 박준우(레저스포츠학과, 3) 학생을 포함하여 7명, 양궁 컴파운드(시범종목)에 김정민(레저스포츠학과, 2) 학생을 포함하여 3명 등 총 2개 종목에 1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황연화 교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색' 작품 전시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가 지난 10월 17~22일까지 대구 갤러리GNI(관장 김선나) 초대전에서 '인간과 자연'에 초대전을 갖었다. 한국화와 규방공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황연화 교수님은 9월 6월 국제연합 아시아국제미술교류협회가 주최한 '2017 제4회 코리아 세계미술공모전'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해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연극영화학과,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공연 참여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가 9월 27 오후 7시 충주세계무술공원 메인무대에서 펼쳐진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공연에 참여했다. 이번 공연 참여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충북지역 축제에 참여했던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제안하게 되었으며 대학생들 공연으로는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유일하게 공연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전국체전 양궁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 획득

우리대학 양궁부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청주 김수녕 양궁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컴파운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우리대학 양궁부 이민욱(레저스포츠학과 3), 김정민(레저스포츠학과 2), 이지훈(레저스포츠학과 1)과 청주시청 양영호로 구성된 충북선발팀은 25일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전북대표(한일장신대)를 만나 231대 230, 1점차 신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김정민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외에도 남자일반부 50m 금메달, 90m 동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해 우리대학 양궁부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양궁부 김형탁 감독은 "중원대 양궁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대회에서도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씨름부 박준우(레저스포츠학과 3)는 이번 대회 대학부 경장급(75kg)에 출전해 4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2대 1로 아쉽게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07면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양궁부 이민욱, 김정민, 이지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극영화학과,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괴산경찰서장상' 수여 받아





▲조성호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있는 이재봉 학우.(사진 왼쪽) 상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가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중원소극장에서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괴산경찰서 조성호 서장을 비롯한 재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경찰서장상'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이재봉·김수민(2학년), 최희진(1학년) 학생이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에 출품한 영화 'For You'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출품작 'For You(연출 이재봉, 연극영화학과 2학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로 다가가는 경찰관으로 인해 한 청소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가 2015년부터 괴산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화를 제작하여 경찰청 인권영화제에 출품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조성호 서장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중원대 연극영화학과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해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재봉 학생(연극영화학과)은 "학우들과 함께 영화의 기획, 시나리오, 연출, 촬영, 연기,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학과 교수님들과 상을 주신 괴산경찰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극영화학과는 매년 지역 축제와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연극 공연, 영상 촬영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대학 학우들 '솔라기능경기대회' 5년연속 입상



▲솔라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사진_길용호(왼쪽2),강병수(왼쪽3),이홍찬 교수(오른쪽 2번째)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주최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한 '제5회 솔라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대학 재학생들은 30여 개 팀이 출전한 이 대회 태양광발전 시공 대학부 부문에 참가해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이홍찬 교수의 지도와 평소 공부했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펼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강병수·길용호(3학년)팀이 은상을, 권소연(3학년)·이지민(1학년)팀과 메카트로닉스학과 김진호·김영철(3학년)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은상을 수상한 강병수 학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홍찬 교수님과 함께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홍찬 교수는 "평소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가며 엔지니어의 모습을 갖춰가는 학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지도를 잘 따라와 주고 함께 노력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 재학생들은 이홍찬 교수의 지도하에 2013년 제1회 대회 때부터 매년 참가해 5년 연속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빛냈다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중원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피켓도우미와 선수단 의전 활동 봉사에 참여했다.

우리대학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주에서 진행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피켓도우미와 선수단 의전 활동 봉사자로 선정되어 개회식과 폐회식을 빛냈다.

이번 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항공서비스학과 89명의 재학생들은 17개 시·도 선수단을 이끄는 피켓도우미 역할과 행사장 곳곳에서 선수단의 이동과 자리 안내를 돕는 의전 활동을 수행했다.

우리대학 항공서비스학과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도 참가해 피켓도우미, 선수단 의전 등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박가영 학생(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선수단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되어 많이 긴장했지만 평소 항공서비스학과 수업과 실습 덕분에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학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서비스학과는 2015년에 신설되어 매년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3학년 재학생들이 익스피디아, 에어아시아 등의 해외 인턴십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편집부〉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2017년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간호학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인이 되기 위해 모두가 거쳐 가는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총 89명의 간호학도들이 2년간의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이어 받기위해 촛불을 밝히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서문을 시작으로 우리 앞에 선 그들의 가슴 떨리는 순간을 만나보시죠.

나이팅게일 선서문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 학과장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망을 주는 촛불의 불씨를 전달 받고 있습니다.



▲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이어받으며,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의미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 번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마음 속 깊이 새깁니다.



▲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사랑스러운 축가까지, 더할 나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들의 한마디



▶ 송윤정 (간호학과 15학번)
긴장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습하는 동안 자기한테 맞는 과를 꼭 찾아서 진로를 정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 한현지 (간호학과 15학번)
실습 가서 기죽지 말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면 예쁨 받을 거예요.(웃음)



▶ 이지유 (간호학과 15학번)
초심 잃지 말고, 잘 견뎌내길 바랄게~ 실습 가는 모두를 응원해!



▶ 송윤수 (간호학과 15학번)
떨지 않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거야.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후배들.

▶ 이혜진 (간호학과 15학번)
얘들아 실습 나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연락주렴. 든든한 선배들이 언제나 너희 곁에 있어줄게. 화이팅!



▶ 이준희 (산업디자인학과 12학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처음 봤는데 다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의 한마디



▶ 이주현 (간호학과 17학번)
선배님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 임수정 (간호학과 17학번)
실습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앞으로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정은지 (간호학과 17학번)
선배님들 모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간호사가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생에 단 한번뿐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진정한 간호인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89명의 간호학도들 모두 선서한대로 훌륭하고 멋진 간호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금메달을 향해 쏴라!



얼마 전 충북 충주에서 개최한 제 98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학교 선수단이 소속된 충청북도 선수단이 종합순위 2위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대학 양궁부 학생들이 포함된 양궁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는 지난해 97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에 그쳐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주는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며 우리학교의 명성을 빛내주었습니다. 빛나는 땀방울을 흘리고 돌아온 금빛 영웅들을 만나봅시다!

JR.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체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 양궁부 소속 레저스포츠학과 이민욱(15학번), 김정민(16학번), 이지훈(17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을 보시면 밝은 얼굴로 인사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웃음)

JR.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라 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라 다른 대회에서의 우승보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민욱 시즌 중 가장 큰 대회이자 마지막 대회를 금메달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작년 97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전국체전에서의 금메달은 더욱 값지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정민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기쁩니다. 긴장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지훈 무엇보다 중원대학교에 입학한 후 첫 전국체전에서의 금메달이여서 더욱 기쁩니다.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형들이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JR. 우승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고비와 난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언제였나요?

민욱 역시 전국체전 결승전이 가장 긴장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전북팀을 1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전북팀이 끝까지 맹추격을 해오는 경기를 펼친 덕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간의 믿음과 꼭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 저 역시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1점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부담감도 엄청났지만 팀원들의 간절함과 노력이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훈 모든 경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점도 있지만 한 경기, 한 발마다 최선을 다해 활을 쐈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긴장해서 흔들릴 때마다 다독여 주시던 형들의 격려 또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JR.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민욱 올 한해 마무리를 정말 좋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을 이어서 다가오는 동계훈련에서도 열심히 훈련해 내년에도 좋은 기량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전 세계에 중원대학교를 빛내고 싶습니다.

정민 지금 가지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곧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훈련을 통해 다음에는 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개인금메달까지 노려보겠습니다.

JR.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금메달과 함께 찾아뵙는 것은 물론, 그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나는 중원대생이다 – 유학생 3편 –

여러분은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마주 친 적 있으신가요? 우리학교 대학원생, 편입생, 어학당 모두 합쳐서 70여명 정도 중국인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만큼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머나먼 타국에서 중원대학교로 유학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1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는 중원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교위한(이하 '교'), 이이범(이하 '이'), 국제통상학과 후영양(이하 '후'), 간호학과 장청운(이하 '장')입니다.

2 어떻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실 생각을 했나요?



교 한국이 중국이랑 가까운 나라인 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한류가 인기일 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 한국어를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한국이 골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 골프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공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권도 하시는 선배님이 먼저 중원대학교로 유학을 오셨는데, 그 분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추천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후 저는 외국에서 혼자 생활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가는 일까지 모든 일을 다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제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저희 학교 중국북경연합대학교와 중원대학교가 교류대학이라는 정보를 듣고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 저는 중국에서 간호학과 졸업을 마쳤는데 전공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본과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3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나 신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교 한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wifi도 어디서든 잘 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다고 느꼈던 게, 은행이나 기차표를 살 때 직원분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밝고 친절해요.



이 제일 신기했던 것은 한국 여자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겨울이면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 그에 비해 너무 얇게 입는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려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데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웃음)



후 중원대학교 공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침일수록 바람도 선선하니 기분까지 맑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밤에도 운동하러 산책 나가면, 하늘에 별도 보이고 밤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의 시기가 다른 점이 신기해요. 지금 이맘 때 쯤 이면 중국은 엄청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견딜 만해요. 따뜻한 봄과 가을이 있고, 여름하고 겨울이 와도 중국보다 덜 덥고, 덜 추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장 한국은 정말 쇼핑천국이예요. 인터넷 쇼핑몰도 너무나 다양하고, 예쁜 옷도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생활용품이 필요해서 마트를 가려해도 멀고,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다 가까이 있어서 편해요.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점은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했을 때보다 한국어 접하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4 앞으로 중원대에서 생활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목표가 있나요?



교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저희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 있는데 그 중에 4급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 중원대학교를 다니면서 골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제 골프 실력보다 앞으로 더 잘해서 프로에도 입문하고 싶습니다.



후 최종적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에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무역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쟁률이 높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면 불가능은 없다 생각해요.



장 한국에서 수업 이수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 더 간호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정말 간호사로 준비가 마쳤다는 생각이 들 때 일을 하고 싶어요.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교 중원대학교에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3명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와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학교를 오게 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줘요. 그 친구들 덕분에 든든하고 고마워요.



이 같이 유학 온 중국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문화도 다르고 힘든 점이 있겠지만 우리 다 함께 잘 견뎌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고 가자~! 힘내~



후 학교 신문에 싣는 인터뷰를 하게 돼서 기뻐요.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장 낯가림이 있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말을 못 걸겠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다가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

중원인의 영수증! 스튜핏?! 그레잇?!



대학생들에게 최대의 투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쓰고, 최대한의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소비 습관이겠죠! 이제 스튜핏한 소비는 그만!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레잇한 소비방법을 알아봅시다~!

스튜핏!



스튜핏!



스튜핏!



스튜핏!



그레잇!



우리 학교에는 한 시간 단위로 셔틀버스가 있죠~! 택시보다 무료인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레잇!



남의 몫까지 다 계산하겠다는 허세는 NO~NO~! 본인이 먹는 건 각자 알아서 계산합시다!

그레잇!



신용카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돈 쓰는 느낌이 없어서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계획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그레잇!



커피를 한 번 사 마실 때는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쌓이면 큰 금액이 되죠. 결국 '1일 1커피'는 스튜핏한 지출이 됩니다. 식후 커피보다는 식사만 합시다!

스튜핏!





그레잇!

학교 내에 미용실, 수선집,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등등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외부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재학생들은 할인도 해주니 좀 더 아낄 수 있겠네요~!

슈퍼 그레잇!!



현명한 지출 관리의 시작은 자기반성에 있습니다. 본인이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체크해 보고 평소 무엇에, 얼마를, 몇 번이나 소비하는지 분석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모으기, 가계부 작성 등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표가 돼, 용돈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 과소비 하는 부분은 줄여가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모델협조: 중국어학과 조영호/ 괴산 CU편의점 사장님

사진출처: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34(카드결제 사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1294709(더치페이 사진)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참여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MADE in 중원

빠송피플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에 따라 유행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매년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기란 힘들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중원대를 빛내는 패피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패션위크를 보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중원대학교의 멋쟁이 '패션 피플'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현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백화점 의류브랜드 매니저 일을 하시는 사촌누나를 통해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촌누나의 일터는 다양한 스타일을 접할 수 있는 저만의 놀이터였죠.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각각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저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댄디,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라, 셔츠와 슬랙스를 주로 입으며 상대방이 저를 보았을 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코디하는 편입니다.

옷을 살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옷과 매치하여 소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옷과 몇 벌 까지 매치해서 입을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데, 로드샵 상품 정보가 모여 있는 편집샵 형식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남성 의류의 경우 비슷한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여성분들의 스타일을 참고 하는 편이에요. 여성들의 스타일 중에서 남자가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스타일을 참고해 조금씩 변형시켜 저만의 스타일로 소화시켜내려고 하죠.

저는 패션의 완성이란, 바로 몸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면 옷의 핏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입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박주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께서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옷들을 접했었거든요. 패션은 외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고1 때부터는 잡지 스크랩도 하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세미정장과 세미캐주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옷, 저 옷 많이 입어봤는데 두 스타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옷을 입을 땐, 제가 구매한 옷을 피팅한 모델의 스타일이나 연예인들의 사복 패션들을 많이 저장해요.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사복패션이 유행을 따라가는 형식이라 거기에 맞춰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코디하면 반은 성공입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옷을 샀었는데 요즘엔 온라인 샵이 워낙 활성화 돼서 인터넷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구매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상의나 원피스는 쇼핑몰, 바지는 유니클로, 겉옷은 유명 브랜드 위주로 구매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패션의 완성은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입은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가 전체적으로 잘 매치되어야 해요. 또 아무리 패션이 좋아도 자기 체형과 맞지 않으면 안 어울리죠. :)





중원의 따뜻한 손님

학교 내에서 저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학생들이 저를 '중원이'라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쏙 들어요~! 상자로 제 집도 만들어주고, 날마다 먹이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도도한 매력과 애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찰스 다윈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능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고 인간도, 지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 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돌보면서, 더불어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학교에 몰래 왔지만 해치치 않으니, 저를 비롯한 모든 고양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 고양이의 신비한 Body~ 알고 만지라옹~
멍멍이와 달리 나는 쓰다듬었을 때 호불호가 있다. 머리나 허리를 쓰담으면 좋고, 나머지 부위는 그다지~ 네가 만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옹! 조심해냥

'중원이' 쓰다듬을 때 참고해야하는 부위

턱	턱은 스스로 그루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양이가 만져주면 좋아해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거나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는 것 모두 가능해요.
귀	귀 또한 스스로 그루밍을 할 수 없는 부위로 귀의 시작부분이나 뒷부분을 마사지하듯 살살 만져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좋아합니다.
뺨	수염 뒤 쪽의 뺨은 만져주면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 단, 고양이 수염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너무 세게 긁지 않게 주의가 필요해요.
귀와 귀 사이 이마	고양이는 머리를 비비면서 자신의 냄새를 묻혀 영역이나 소유물을 표시하는데 귀와 귀 사이의 앞 이마를 살살 긁으면 좋아합니다.
꼬리 쪽의 엉덩이	'좋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꼬리 시작 부분의 엉덩이를 만지는 궁디팡팡은 강도와 손목스냅, 애정도가 중요하며, 고양이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출처: http://blog.naver.com/petlabs/220920610057)

'중원이'에게 먹이로 주면 안 되는 것들

사람용 우유	고양이들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배탈,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우유 안의 유당을 적절히 소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음료를 주고 싶다면 고양이용 우유, 깨끗한 물을 주도록 해주세요.
간식 캔	간식 캔은 치석의 원인이 됩니다. 치석이 쌓이면 구내염과 치주염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구내염이 발생한 길고양이를 케어 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날생선	날 생선에 있는 티아미나아제 효소는 고양이에게 필수 비타민인 티아민을 파괴합니다. 타이민의 부족은 심각한 신경 문제를 유발하고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에 빠집니다. 날달걀과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과, 기생충 감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짠 음식	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속설 중 하나는 '짠 음식은 위험해'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유래된 나트륨을 적정량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먹는, 인간의 입에 맞춰진 '간이 된 음식' 은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타	초콜릿, 양파, 마늘, 파, 부추, 건포도, 포도, 유제품, 자일리톨, 간, 날계란 등도 안됩니다. 위험해요.

(출처: http://blog.naver.com/yonggangah/221124465331)

※고양이들에게 이걸 줘도 될까? 싶을 때는 일단 보류하고, 이 음식이 괜찮은지 충분히 알아본 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고양이용 음식만 주는 것입니다.
※중원이는 현재 마음 따뜻한 한 학생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은 "JR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 주세요.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눈을 가려도 '나야 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과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스펙이 아닌 '나만의 스토리와 역량'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블라인드 채용' ! 현재 여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나' 를 스스로 더 발전시킨다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한 깨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01 블라인드 채용이란?

입사지원서나 면접, 서류심사 등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등 지원자들에게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관련된 지식 등으로 평가를 하는 새로운 방법의 채용 방식.

장점

개인 특성 → 직무 역량 · 경험…기대감↑
첫째, 내 경험과 능력으로 승부! 학점, 신체조건 등 보통의 기업에서는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 반면 블라인드 채용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승부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여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명문대 위주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지방대 학생들이 그 지역의 취업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

단점

'무늬만 블라인드' 우려
첫째, 역차별 논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과 지방대 학생들을 우대해 수도권 중심 대학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둘째, 학점, 스펙 등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접을 통해 완전히 숨길 수 는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서류심사 없이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첫인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02 블라인드 채용에 살아남기!

첫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실 때가 많으시죠?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기전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일을 잘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적합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

두번째 공모전, 대외활동 등을 통해 경험 쌓기

학력, 스펙 등을 보지 않지만 관련 분야의 경험은 면접관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일과 관련된 공모전을 준비하고, 대외활동도 참여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번째 나를 어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면접 시에는 면접관에게 나를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소개 하나를 준비해도 나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말이나, 면접관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소개가 좋습니다. 또 내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처음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이트

정보가 부족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대티즌' (공모전,대외활동) - http://www.detizen.net/
2) '사람인 공모전' (공모전) - http://contests.saramin.co.kr/
3) 'NCS(국가직무 능력표준)' - http://www.ncs.go.kr
4) '인크루트' (취업정보) - http://www.incruit.com/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국제교류원 옆





클릭해봐! 다이쇼

대학생 필수 홈페이지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학캠퍼스를 꿈꾸며 시작했던 대학생활이 한 달 만에 과제, PPT 등으로 물들어 버린 적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지만 학점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JR이 여러분들의 학점이 A+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대학생 필수 홈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완벽한 과제로 만들어 줄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고보드(쉽고 관편한 디자인 플랫폼) 이 사이트 좋아요 ♥♥♥



디자인 제작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템플릿, 디자인 요소, 편집의 툴을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평소 PPT 과제 등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템플릿과 사진, 아이콘 등의 디자인들이 제공되어 시각적인 방면에서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질 수 있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ppt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슬라이드 쉐어', 'Made in 양선배', '친절한 혜강씨' 등 ppt 템플릿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개드린 '망고보드'와 '슬라이드 쉐어' 사이트를 이용해 교수님한테 예쁨 받는 PPT 한번 만들어 볼까요?

http://www.mangoboard.net/ (망고보드)
http://www.slideshare.net/ (슬라이드 쉐어)
http://ynr007.blog.me/ (Made in 양선배)
http://bit.ly/2ylvmve (친절한 혜강씨)

2. 소셜멘토링 잇다(itdaa) 이 사이트 좋아요 ♥♥♥♥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 바로 직업, 진로의 관한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잇다' 사이트입니다. 여러 계층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현직자들이 직접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 모두 자신의 진로쯤이야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당장 제 진로를 찾아봐야 겠네요~

http://itdaa.net/ (소셜멘토링 잇다)

3. 대티즌(대외활동, 공모전 모음) 이 사이트 좋아요 ♥♥♥



학교 과제, 공부 등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의 스펙을 확실히 채워줄 공모전 사이트 '대티즌'을 소개합니다. 경진대회, 카툰, 홍보, 아이디어 등 각 분야의 공모전과 해외탐방, 봉사활동, 서포터즈 등 대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모전은 스펙향상 뿐만 아니라 우승상금과 상품 등도 있으니 많은 여러분도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 상금 꼭 가져가세요!

http://www.detizen.com/ (대티즌)
http://contests.saramin.co.kr/ (사람인 공모전)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학위논문 강의자료) 이 사이트 좋아요 ♥♥♥♥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RISS는 방대한 양의 학위 논문 강의 자료 등 자료가 많아 자신이 원하는 논문자료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유명합니다.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등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필수 사이트에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중원대 전자도서관에도 RISS 뿐만 아니라 뉴논문, 학술교육원 등 여러 참고 사이트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riss.kr/index.do (학술정보원)

5. 중원대학교 포탈 (Office365) 이 사이트 좋아요 ♥♥♥♥♥



과제를 해야 하는데 파워포인트, 엑셀 프로그램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긴 적 없으신가요? Office와 중원대학교가 연동되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 및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 곤란해 하는 친구들이나 신입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이트 아닐까요? 그리고 중원대학교 포탈에는 취업지원센터, 전자도서관 등 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http://www.jwu.ac.kr/site/siteView.jwu

위에 소개된 사이트는 잘 보셨나요? 저한테는 벌써 여러분에 학점이 A+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유용한 사이트 들이 있지만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러분에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모두 좋은 학점 받고 즐거운 캠퍼스라이프를 즐기시는 중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소씨 자매의 취업 성공기!

우리대학에는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두 여자가 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학과 소지현, 식품공학과 소유진이다. 그러나 둘이 자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이런 두 자매가 같이 입학해서 졸업 또한 같이 하게 된다. 학교 행사활동과 학점관리 그리고 연애까지 완벽하게 완성 시켰던 그녀들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그녀들의 대학생활을 살짝 훔쳐보도록 하자!

※이 인터뷰는 두 자매의 4년간 찬란했던 대학생활이 마치 하나의 일대기로 느껴져 소설형식으로 각색해 보았다.

입학 1년





때는 바야흐로 2014년 단발의 모범생 소지현(이하 '소씨 1') 그리고 동생 소유진(이하 '소씨 2')이 중원대학교에 첫 발을 딛는다. 소씨1은 입학과 동시에 성적우수로 총장님 상을 받으며 무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녀는 학과에서 유일한 여학생으로 학과 총무 역할에 도전한다. 소씨2도 부과대가 되어 학과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혀갔다.

그러나 학과에서 활동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소씨자매!

이 둘은 학교 홍보대사 가람에 도전! 6기 홍보대사로 당당히 입성하게 된다.

입학 2년

후배들이 들어오고 선배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소씨 자매는 2학년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살기 위해 국가근로와 홍보대사를 병행하기 시작한다. 둘은 각각 입학처와 학생처에서 국가근로를 하며 용돈도 자급자족 하면서 강한 생활력을 키웠다. 더불어 홍보대사 활동도 열심히 뛰고 있었다. 수시·정시 입학박람회를 비롯해 입학식·졸업식, 간식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그녀들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 했다고 한다. 항간에는 독한 그녀들이라는 소문도 퍼졌다.(^^멋진 그녀들에게 찬사를)





입학 3년





3학년이 된 그녀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 시작한다. 소씨2는 교내에서 하는 행사 및 대회를 위주로 자신의 스펙을 쌓았다. 매년 주체되는 중원대학교 그린캠퍼스 UCC, 사진 공모전에 참여한 소씨2는 홍보대사와 팀을 이뤄 UCC대상, 사진우수상 이라는 엄청난 기록도 달성한다. 그리고 그녀들이 염원하던 맥북에어와 상품권을 거머쥔다. 소씨1 역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스펙을 쌓기 위해 충북에서 주최하는 솔라기능대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갖는다. 그녀들은 3학년 때는 주로 스펙을 쌓았다고 한다.

입학 4년

그동안 많은 학교 활동들을 해왔지만 꾸준한 학점관리도 잊지 않았던 소씨 자매! 어쩌면 취업에 제일 성공적인 비결일수도 있다. 소씨 1은 취업에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수도 없이 다듬으며 완성시켰다. 그리고 올해 5월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당당하게 취업을 한다. 이에 질 수 없는 소씨 2도 자신의 꿈에 도전해 10월에 취업에 성공했다. 그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자격증과 토익을 준비하며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입학도 같이 졸업도 같이 하게 되는 멋지고 당당한 그녀들의 찬란한 대학 4년에 경이를 표하며 여러분도 멋진 꿈을 그려 나가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은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지현(언니)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교내, 교외의 많은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후배님들은 저보다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유진(동생) 처음 대학생이 되면 설레기도 하고 학점 챙기느라 바쁠 텐데, 학교생활하면서 경험해볼 수 있는 동아리나 공모전 같은 활동들이 엄청 다양하니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대학생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추억 쌓기 및 학점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 얻는 것들도 많으니까 많은 경험하며 후회 없는 대학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생 '알바'통



방학이면 마냥 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다 돈이 드는 법!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 하지만 어떤 아르바이트가 나에게 맞을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선민 기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알바생활에 대한 생생한 후기들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선민 기자 min123012@jwu.ac.kr

01. 카페알바

(feat. Y카페 알바생 오선민)





기자 **향긋한 커피향이 가게를 채우고 있습니다. 손님들 표정도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카페에서 일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한 번 만나보시죠.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보입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 만들기를 반복하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여유롭게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기자 **아니, 알바하면서 커피도 마음껏 드실 수 있나요?**

알바 네, 저는 일 하다가 마시고 싶으면 한 잔씩 만들어 마셔요. 대신 손님이 없을 때 한 잔 정도여야겠죠? 일을 하면서도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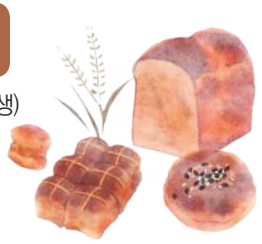
기자 **그런데 커피뿐만 아니라 스무디 음료에 빵까지 굽는걸 보니 일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카페알바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팁 좀 주세요~**

알바 처음 할 때는 레시피가 손에 안 익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음료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빨리 외울 수 있으니까 자주 만들어보세요. 은근히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02. 베이커리알바

(feat. 괴산 P제과 베이커리 알바생)





기자 **고소한 빵 냄새가 풍기는 이곳은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 아르바이트는 정말 빵순이, 빵돌이들의 천국이 아닐까 싶네요~**

알바 빵 굽는 시간대에 일 하게 되면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기자 **고소한 냄새에 정말 침이 고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맛있는 냄새네요. 각양각색의 맛있는 빵 냄새를 참아가며 일 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이커리 아르바이트는 각각의 빵 이름을 외우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소 빵을 좋아하고 종류를 잘 외우고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알바 친절한 사장님을 만나면 남은 빵도 받아올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웃음)

기자 **남은 빵도 받아올 수 있다니, 정말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르바이트인 것 같네요!**

03. 공장알바

(feat. 공장알바 경험자 김채현 보건행정학과 15)





기자 **다음은 사람들이 모여 바쁘게 일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 알바도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공장 아르바이트는 어떤지 한 번 알아볼까요?**

알바 같은 일만 반복하려니까 힘들어요.. 일이 질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알바비가 많아서 좋아요.

기자 **이렇게 공장은 손님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의 양이 많고 같은 일만 반복한다는 점이 힘들다고 하네요.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가 높다고 합니다. 주로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방학을 이용해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로 좋을 것 같습니다.**

04. 엑스트라알바





기자 카메라가 즐비한 이곳은 바로 촬영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 까요? 바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입니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돈도 벌고 배우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배우들 바로 옆에서 얼굴을 알릴 수는 없지만 촬영했던 씬을 찾아보고 자신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숨은그림찾기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엑스트라 알바지만 배우들의 시간에 맞추어 촬영,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또 대기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대기시간 까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05. 편의점알바

(feat. 괴산 CU편의점 홍슬기)





기자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넘쳐나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쉬운 일로 꼽히는데요, 그런 편의점 아르바이트에도 고충은 있다고 합니다.**

알바 담배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나 담배에 관심이 없는 비흡연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이 많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가끔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자 **야간에는 취객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괴산을 180° 뒤집다!

2009년 괴산의 거리를 기억하는 학우들은 얼마나 될까? 2009년도는 중원대학교가 이제 막 태어난 해였다. 아마 학우 여러분 모두가 입학하기 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커피를 먹고 싶으면 어딜 가든 다양한 커피숍이 있고 빵이 먹고 싶으면 주위에 베이커리도 쉽게 갈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전혀 없었다. 괴산의 과거는 어땠을지 그곳이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해 보았다.

괴산과의 첫 만남

괴산을 오려면 제일 첫 발을 딛는 괴산시외버스터미널. 항상 그 자리에서 집을 올라가거나 학교로 돌아오는 학우들과 괴산과의 중간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아주 고마운 곳이다.

외관은 별 다를 게 없지만 안쪽을 살펴보면 전에 없던 첨단 터치스크린 전광판이 과거와 다른 현재의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2009년


2017년



2009년 롯데리아 장소





2017년 현재

햄버거와의 추억

2009년 당시에는 정말 시골 같던 읍내의 모습이였다. 당시 선배님들은 커피나 빵을 먹고 싶어도 가야할 곳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읍내는 여러 가게들이 생기며 선택폭의 다양해졌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디아 커피숍부터 2층에 전망 좋은 자리로 유명한 디에떼 커피숍 등 많은 커피숍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매장인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청주 오믈렛 까지 생겨 학우 분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전 프라자약국은 롯데리아로, 한우 축산물은 한솥도시락으로 바뀌어 학우들의 만남의 장소와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선택의 갈림길

2009년에는 조금은 삭막할 수도 있는 거리와 적은 수의 상점이 대다수였다. 지금의 괴산은 골목마다 여러 맛집 들이 생겨나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대학생들을 위한 상점들이 즐비하다. 마포갈매기부터 일본식 가정식 미소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맘스터치는 물론 괴산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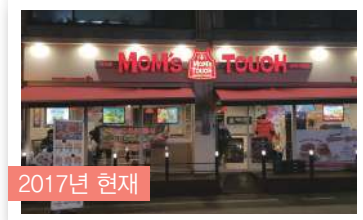
예전에는 저녁 8시면 불이 꺼져 '불 꺼진 도시'이던 괴산은 계속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상가마다 젊은이로 북적이며 생동감 있는 거리가 일상이 되고 괴산의 경제발전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2019년이면 우리대학이 1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괴산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며 우리 중원대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10년, 20년 후에도 새로운 후배들과 괴산군, 우리대학이 성장하며 발전하길 바란다.

한민혁 기자 1010hmh@jwu.ac.kr


2009년





2017년 현재



인성과 글로벌 마인드

우리대학 '슈퍼 그레잇' 자랑

안전한 기숙사

매 학기마다 소방훈련,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대피경로와 대처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그외의 재난 상황에도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장학금

장학금 비율 충북 2위(29.43%)를 자랑
입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활동을 통한 언론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등 많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선배

필수 인성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선배들은
최고의 인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

교내 녹지율 70%를 자랑하는 우리대학은
다양한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연간 1000kW의
전력과 5.49t CO2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그린캠퍼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TOP 1

취업률 : 충북 1위(72.19%)
전임교원 확보율 : 충북 1위(81.55%)
법인전입금 비율 : 충북 1위(15.85%)
교사확보율 : 충북 1위(165.87%)

인생 리셋 각 인정?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었던 게 있었나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되지만, 미리 알게 되거나 대비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 4학년 조영호(이하 '조'), 생약자원개발학과 4학년 이지혜(이하 '이'), 컴퓨터공학과 4학년 정호룡(이하 '정')입니다.

선배님들 혹시 '인생 리셋각 인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년의 대학생활 동안인생을 리셋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자신에 맞는 즐거운 공부 방법 찾기


조

저도 리셋하고 싶은 부분이 많죠.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 전공이 중국어학과인데 솔직히 흥미나 목표가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 성적에 맞춰서 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학과를 리셋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일찍 흥미를 갖고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 한다는 거죠.(웃음) 저 지금 중국어 정말 잘해요. HSK가 6급인데 짧은 기간 공부한 것 치곤 괜찮죠?(웃음)

제가 중국어를 잘하게 된 건 우연히 학교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친구랑 대화하고 같이 공부하다보니 중국어가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중국어 공부도 하게 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환학생을 신청해 중국도 다녀왔죠. 제가 후배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작정 공부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뒤늦게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더 빨리 공부에 흥미를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후배 분들 중에도 아직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신다면 '어떻게 하면 학과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해야 잘 될까?' 고민해보시고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꼭 찾길 바랍니다.

'홍보대사 가람, 언론장학기자 JR, 총학 등 많은 대외활동 활용하기


정

제가 리셋 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기자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게 아쉬워요. 그래서 한학기 밖에 못하게 됐는데 후배들은 이런 활동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학교에 홍보대사 가람, 총학생회, 언론장학기자 JR 등 좋은 대외 활동이 많아요. 장학금도 받고 스펙도 쌓고 일석이조죠.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학기 동안 기자단 활동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직도 좀 더 일찍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학교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수업 있는 날은 수업 듣고, 기숙사 와서 쉬고,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럼 재미없고 따분한 대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학과 친구들도 알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가도 학보가 나왔을 때 뿌듯한 감정이 들면서 기뻐요. 많이 경험 할수록 스스로에게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저 학년일 때일수록 많이 알아보고 참여하고, 경험도 쌓길 바랍니다.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기


이

저는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놓치고 지나친 게 많았어요. 후배 분들은 대학 생활 동안 학교 내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제가 지금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웃음) 근데 이것도 잉글리쉬 카페 덕이 컸어요. 1,2학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기 카페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용기내서 가봤죠. 솔직히 영어만 쓴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영어회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영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외국인 친구들과 게임하는 모습, 외국인 교수님이 학생들 멘토링하시는 모습을 보고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계속 카페에 자주 갔어요.

덕분에 영어 실력도 늘고 방학 때는 교수님 추천으로 풀브라이트(원어민 보조교사)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죠. 그리고 지금은 영어학과 복수전공도 선택해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세요. 최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보고 부딪쳐보면 자기랑 맞는 걸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잖아요. 물론 이때 본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교수님들 등 저희보다 더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 말씀을 흘려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되게 와 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느낀 건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 나쁜 일 뭐든지 겪어봐야 대처능력도 생기고,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회 나가기 전에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세요~!


이

중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일반공지, 학사공지를 자주 보길 바랍니다. 학교 각 부서에 어떤 공지가 올라오는지 보고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신청해보세요. 고등학교처럼 누가 대신 찾아주지도 않고, 스스로 땀을 흘려야 그만큼 여러 가지를 경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킴벌리 커버거'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제15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KBS 전국 노래자랑 괴산군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이 괴산에 왔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11월 예심을 거쳐 본방송 녹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괴산군민은 물론 증평, 청주 등에서도많은 분들이 참여해 예심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 유독 젊은 열정과 끼로 눈에 띄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대학교 학생들! 이들의 도전 일기를 생생한 현장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예심을 보기 전 사진 한 컷은 기본이죠! 떨어질 수두 있으니 미리 기념 촬영해야겠죠. 긴장 반, 설렘 반 모두 잘 할 수 있어요!!



역시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은 흘러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도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빨간 고무장갑 덕에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네요!



무대에서는 그 끼가 완전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녀들이 무대를 시작하자 관객석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괴산 배추 아가씨입니다~"



이어서 나온 연극영화학과 17학번 막내들! 찌르고! 찌르고! 이렇게 귀여운데 합격 안시켜줄거야?



사진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로 무대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엄청난 무대매너를 보여줬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ㅠㅠ



누가 봐도 운동선수 비주얼을 뽐내는 씨름부 학우도 참가했습니다. 누구보다 무덤덤하게 노래를 마치고 깔끔하게 퇴장하는 모습에서 모래판을 떠나는 이만기의 기운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 인가요.



역시 명불허전 ENT!! 동아리 회장다운 모습으로 무대를 찢어 놓는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건 뭐 잘생기고 노래잘하고 혼자 다 하세요. 흥!



초대가수의 신나는 축하공연!! 우리 학우들도 신나서 쉐낏쉐낏!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어유!!



본선까지 진출한 연영과 학우들! 큰 무대에도 떨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날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나는 무대로 어르신들 어깨 탈골각 인정? 어 인정.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오는 정성에 눈물을 훔치는 부분이고요.



괴산 유기농 배추와 괴산 청결고추로 만든 김치에 송해 선생님도 군침을 삼키다가 한 입 드시고는 밥 한 공기 뚝딱해버리는 맛. 레알 밥도둑~ 동의? 어 보감~



결국 인기상을 손에 거머쥐며 성공적인 전국노래자랑 도전기를 마쳤습니다!

제 5회 산업디자인학과 인사동 졸업전시회

PIT A PAT

[; 같이 할 때 가치 있는 두근거림]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이 'pit a pat – 같이 할 때 가치 있는 두근거림' 을 주제로 인사동에서 제5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4년 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졸업전시회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 '하비트' 와 '누리보듬' 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비트 (Hobbit)

: 취미생활 키트를 집으로 배송

산업디자인학과 14학번 권한울



'하비트(Hobbit)' 는 취미를 뜻하는 'hobby' 와 선물을 뜻하는 'gift' 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취미를 선물 받고, 만드는 취미를 선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비트' 는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핸드메이드 키트를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하비트' 는 테라리움, 걱정인형, 소이 캔들, 슬라임 등 많은 DIY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테라리움 키트

테라리움에 사용되는 틸란드시아 식물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해 양분을 흡수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탁월한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테라리움 키트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걱정인형 키트

오래전부터 과테말라 고산지대의 마야 인디언들은 잠못 이룰 때 작은 인형에게 걱정을 한 가지씩 말하고 베게 아래 넣고 자면 잠든 사이 걱정인형들이 각자의 걱정을 가져가 준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신가요? '하비트' 의 걱정인형 키트로 손쉽게 걱정인형을 만들어 보세요.



3 소이 캔들 키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이 캔들 만들기 키트입니다. 아이콘을 이용해 보기 쉽게 제작한 매뉴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하비트' 만의 다양한 스티커로 꾸미고 나만의 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스트링 아트 키트

스트레스 해소와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트링 아트입니다. 여러 고민 할 필요 없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내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전시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비트' 의 로고가 담긴 스티커와 메모지를 제작하여 가져갈 수 있게 마련해 두었고 포토존을 숨겨두어 방문자들을 위한 공간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하비트를 만날 수 있답니다. [인스타그램:hobbit.kr]

누리보듬

: 지구촌 어린이를 후원하는 친환경 기프트샵

산업디자인학과 14학번 강보람





'누리보듬' 은 온 세상을 한껏 보듬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수난, 영양, 보건, 위생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어린이들을 보듬기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기프트샵입니다.

'누리보듬' 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구촌 어린이를 후원하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사회 모두가 득이 되는 기부문화로써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누리보듬' 상품은 곧 어린이를 살리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누리보듬' 은 디퓨저, 캔들, 마카롱, 머그컵과 직접 인형을 만들어 선물하는 인형 만들기 패키지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 선물하세요. 그리고 어린이에게도 잊을 수 없는 향으로 남아주세요.







휴대용 친환경 정수키트는, 어린이들에게 '누리보듬' 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린이들이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아메리카 각 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특성,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 등을 파악해 지형별 취약 조건을 기회로 삼아 어린이에게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리보듬 정수키트' 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형 조건과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을 담은 필터와, 가격이 저렴한 중공사막 필터, 그리고 숯을 담은 활성탄 이 세 가지 필터는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의해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각 하나당 최고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디퓨저, 마카롱, 머그컵 등 패키지 상품들, 직접 제작한 캐릭터, 캐릭터를 응용한 삽화와 휴대용 친환경 정수키트는 3D프린팅을 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박숙인 기자 sukin429@jwu.ac.kr

중원이 이끄는 길,
그곳이 미래의 방향입니다

한발 앞서, 그리고 한발 멀리 세상을 바라보는 중원대학교는 특화된 학과교육과
선진 레지던스 컬리지를 표방하는 최상의 교육환경으로 인재의 미래 경쟁력을 높입니다.
신성장동력 중심의 학과교육과 국제 감각을 키우는 글로벌 프로그램,
체계적인 인성교육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중원의 힘입니다.

중원에서 내일을 만납니다



미래지향 정예교육의 특화된 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기계공학과 / 항공재료공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임상병리학과 / 보건행정학과
뷰티헬스학과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 한국학과 /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 경영학과 / 국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 법무법학과 / 연극영화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 제약공학과 / 식품공학과 / 생체의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창의융합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소방방재공학전공) / 산업디자인학과
말산업융합학과 / 체육학부(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경호학전공)

2018학년도 중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 **정시(가, 나군)원서 접수기간 :** 2018. 1. 6(토) ~ 2018. 1. 9(화)
- **입학문의 :** (043)830-8082~5 http://ipsi.jwu.ac.kr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